

'힐링 대명사' 장흥 우드랜드 가족 체험공간 인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가 다양한 가족체험공간으로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다.

'편백숲과 함께 몸과 마음 치유' 하루 1만3천명 몰려 '책꽂이 만들기' '말레길 걸어요' 등 이벤트 행사 다양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가 다양한 가족체험공간으로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편백나무 목공예체험인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사람의 책꽂이 만들기'가, 18일에는 우드랜드에서 억불산 정상(해발 518m)까지 이어진 말레길(무장애데크로드 3.8km)을 가족과 함께 걷는 '엄마, 아빠, 장애우 손잡고 말레길 걸어요' 행사가 열렸다. 오는 25일에는 '힐링이 우드랜드 놀러가자'라는 주제로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말레길과 편백소금집에서 일일 힐링체험행사가 예정돼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지난 18일 하루 1만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번 목공예체험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한 김용준(46·서울 신림동)씨는 "가족과 함께 우드랜드에서 여러가지 체험을 하고, 피톤치트 생활 장애우 손잡고 말레길 걸어요" 행사가 열렸다. 오는 25일에는 '힐링이 우드랜드 놀러가자'라는 주제로 선착순 김혜정(41·대구시 북구)씨 역시

"아이들과 함께 여에스터 박사로부터 숲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교육적인 시간이 좋았다"며 "먹어보고 싶었던 장흥 삼합도 맛보고 비비에코토피아 숲속 풍욕 체험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흥군은 매년 힐링캠프를 열어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관광자원으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가족과 함께 숲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힐링과 가족은 떼어놓을 수 없는 명제로,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아말로 향후 관광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힐링열차' - 홍길동축제 연계 장성 관광 홍보

장성군이 코레일 기차여행상품(힐링열차)과 홍길동축제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제15회 홍길동축제 기간인 오는 25일 수도권 지역과 대전 등지에서 관광객 5백여명이 축제관람과 축령산, 방장산 등반을 위해 장성을 방문한다. 먼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관광객 400여명은 오전에 홍길동축제를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치유의 숲인 축령산으로 이동해 '힐링 트레킹'을 체험하고 당일 상경할 예정이다. 제15회 장성 홍길동축제는 '홍길동과 함께 놀면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홍길동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성=김철호기자 yongho@



장흥 흑토마토 '까망토' 첫 출하. 장흥 흑토마토의 '까망토'가 21일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맺고 2kg박스 400개를 첫 출하했다. 장흥군 고유 브랜드인 '까망토'는 3년 전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품종 연구를 통해 개발됐으며, 작년엔 4개 농가 2ha에 보급된 바 있다. <장흥군 제공>

"강진 회춘탕 아시나요" 군, 명품화 추진

강진군은 21일 "최근 마량면에서 새롭게 개발돼 인기를 얻고 있는 회춘탕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회춘탕은 유류와 해산물, 한약재를 조화롭게 첨가해 만든 음식으로, 회춘탕을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2000만원을 들여 기존의 5~6인용의 조리법을 1인용 특별배기로 규격화하고, 품평회와 시연회를 거쳐 희망업체들을 건설당해주는 '강진회춘탕 명품화'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장성=남철호기자 chou@

전북

부안 군청사 태양광 설치 완료

64kw 규모...연간 전기사용량의 5% 수준

부안군은 21일 "청사에 총 64kw 규모의 태양광시설 설비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를 마치는 등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태양광시설은 청사 옥상에 59.84kw 규모와 1층 종합민원실 앞에 4.16kw 규모로 갖춰졌다. 모듈별로는 결정형 모듈 54kw, 박막형 모듈 10kw를 설치했다. 특히 박막형 모듈은 빛이 투과되는 등 건물 미관과 잘 어울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태양광 모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실험기동 및 시설물 검사 등을 거쳐 오는 29일 준공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태양광시설을 통해 1일 229kw, 연간 8만3500kw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군청사의 연간 전기사용량 175만8108kw의 5% 수준으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연간 1100만원의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민생경제와 관계자는 "부안은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상징적·선도적 지역"이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우위 및 산업을 위해 박막형 모듈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부안=정재욱기자 jyj0681@

전북도, 14개 시·군 관계자 회의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예산 확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전북도 유기상 기획관리실장과 14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등은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14개 시·군이 '도-시군 국가예산 협력'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력반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공조대응하고,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은 "도와 시·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잘 짜인 전략으로 온 힘을 들여 노력을 한다면 국가예산 확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완주군의회 '전주·완주 통합 반대특위'

'찬반 투표'에 공무원 동원 중단 촉구

전북 완주군의회 '전주·완주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가 관공선거 중단을 촉구했다. 완주군의회 통합반대 특위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일방적인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 찬반 주민투표(6월 하순)를 앞두고 완주군 일부 공무원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찬성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대특위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통합하면 모든 지역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

고 있지만, 주민의 자율적·합리적 판단이 없는 통합은 결국 '실패한 통합'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통합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완주군의회 의원 7명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통합의 정당성과 불필요성을 알리겠다고 지난 2월 반대특위를 구성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화순 올해의 힐링푸드 5選

- 흑염소 떡갈비
- 뽕잎양념말이김치
- 파프리카미역말이
- 건강 부꾸미
- 인삼유자 초계탕

올해의 힐링푸드로 흑염소떡갈비, 뽕잎양념말이김치, 파프리카미역말이, 건강 부꾸미, 인삼유자 초계탕이 선정됐다.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란 의미의 힐링푸드들이 대거 참가해 지난 17~18일까지 열린 힐링푸드 요리경연대회 결과다. 이번 대회는 파프리카, 블루베리, 더덕 등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푸드테라피 부문(정식 또는 코스요리)과 힐링푸드 간편식 부문(일품요리)으로 진행됐다. 지난 17일 열린 일반부 경연에

서는 본선에 오른 30개 팀 중 푸드테라피 부문으로 출전한 강신만·김명자 팀이 훌륭한 흑염소떡갈비, 뽕잎양념말이김치, 파프리카미역말이, 건강부꾸미 등이 대상을 전라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하루 뒤인 18일 28개팀이 출전한 학생부 경연에서는 우수대 김희용·문진현 팀이 간편식 부문으로 화순의 색을 담아낸 인삼유자 초계탕을 출품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화순출신인 유선희·이명숙 팀은 파프리카와 산양삼을 이용한 작품으로 푸드테라피 부문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경연대회의 심사에는 학계 및 양·항방 의료계, 식품영양, 조리 전문가 등 14명이 참가해 일반부와 학생부 분야에 각각 7명씩 위촉됐다. 이들은 경연대회 주제와의 적합성, 재료구성, 창의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내달 8일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

담양군, 지역 특산물 이용 신메뉴 개발 저변확대

담양군이 오는 6월8일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담양군의 대표 특산물인 죽순을 이용한 '2013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는 신메뉴 개발로 전국 소비자들의 죽순 수요의 저변확대와 죽순요리의 응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치러지며, 부문별로 전채요리 또는 디저트 중 1종과 메인 요리 1종 등 모두 2종의 죽순을 이용한 신메뉴로 신청서와 함께 레시피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본선 진출자는 오는 6월8일 전남도립대에서 교육부장관상(상금 200만원)과 전라남도지사상(상금 100만원) 등 총상금 900만원을 걸고 경연을 펼치게 된다. '2013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는 담양군과 (사)담양죽순생산자 단체 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도립대학교 한국음식과가 주관하며, 전남도와 교육부에서 후원한다. /담양=정재욱기자 jyj@

단신

정읍 탐푸르트 사과 생산 현장컨설팅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 최고 품질 탐푸르트 사과 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 교육을 가졌다. 이날 컨설팅에는 전북·경남·충북 탐푸르트 사과 시범단지 10곳의 200여 농가가 참석했다. 이번 현장컨설팅에는 농촌진흥청 중앙기술지원단 송양익 박사가 강사로 나서 사과 고 품질 과실생산에 관한 적과 방법, 결과지 및 도장지 관리 등 수확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했다. 올해 정읍지역 탐푸르트 농가는 모두 20농가(34ha)로, 사과 600t을 생산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허브향토산업추진단 허브교실 수료

남원허브향토산업추진단(단장 배종철)은 21일 오전 운봉 허브밸리 내 위치한 카페테리아에서 수강생 및 관계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허브교실(허브활용반 중급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에 대한 관심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련된 허브교실은 10주간 운영됐다.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된 허브교실 중급과정에서는 아로마테라피, 에센셜오일 활용법, 기초화장품 만들기, 허브탐방, 지리산 자생식물 탐방, 허브를 활용한 효소 만들기 등을 교육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여성구직자 대상 취업박람회

전북세일지원본부(센터장 김보금)는 21일 순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순창군 여성구직자와 함께하는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찾아가는 직업교육 훈련 경리실무사무원 양성과정에 참여한 교육 수료생과 지역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

처와 구직자간 현장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리실무사무원 교육 수료생 및 구직 희망여성 100여명과 관내 11개 여성친화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농협 조경수 판매능가 100억 지원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21일 "조경수 판매 능가에 100여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농업·농촌친화법 개정 이후 논·밭에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급증했으나 수년째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조경수 판매가 막혀 이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13개 농협은 조경수묘목 생산·판매 활성화를 위한 연합마케팅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김창수 전북본부장은 "전국 농협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판매자금을 활용, 조경수 재배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농가 일손돕기도 앞장

남원시 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장기연수생과 신입실무 교육생 등 100여명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연수·교육생 들은 지난 16일부터 남원시 아영면 등 교육원 인근 농가를 찾아 사과꽃 따주기, 포도 열매매주기 등 일손 돕기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연남뉴스